

'97년 보존처리 유물 사후점검 결과

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외부로부터 보존처리 의뢰한 유물 ('81.2.27~'97.6.4까지 총63개 기관 7,390점)에 대해 '97년부터 5차에 걸쳐 유물 보존처리후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왔다.

'97년 사후점검은 '97.4.22~6.21까지(기간중 25일간) '96년에 실시한 44개 기관중(유물 4,295점) 지적사항이 있었던 21개 기관(유물 1,487점)을 재점검하였는데, 그 결과 16개 기관(유물 164점 점검대상의 약 11%)의 유물 관리상태가 불량하여, 재보존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.

사후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·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은 예산 및 전문요원이 부족하였으며, 유물의 적정 온·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시설이 미비하거나 시설이 있어도 운영상의 예산 등 문제로 미가동하고 있다.

따라서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후대책을 강구하여, 유물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.

- 재처리 대상유물은 우리소의 유물처리 능력을 감안하여,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재처리할 것이다.(16개 기관 164점)
- 향후 발굴은 발굴허가 과정에서 유물의 과학적인 보존처리 능력과 보존시설을 갖추도록 행정 지도를 펴 나아갈 방침이다.
- 유물관리자는 전시실과 수장고의 연간 온·습도 측정자료를 기록 유지하여, 적정 보관환경 (20℃, R.H 50%)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것이다.
- 유물담당자에 대한 보존과학 기초연수를 실시할 것이다.
('97.8.25~30 : 6일간, 교양 및 실무교육)
- 사후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권유하며,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.



녹색이 응고된 철마



부식된 철부